

지역 전문건설업 불황 '허덕'

지난해 업체 절반이 10억이하 수주
도내 발주 76% 타지역 업체가 독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총 공사실적(기성액)은 1조3천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1조3천412억원)에 비해 4.1%(55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업체당 평균 기성액도 19억7천500만원으로 1%(2천600만원)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업체간 공사실적 격차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광주에 실적을 신고한 679곳 가운데 공사실적이 10억원을 밑도는 업체는 387개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의 56.9% 수준

으로, 지역 업체 10곳 중 6곳 가량의 실적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주택업체와의 총 계약건수가 771건에 그쳤다. 이는 1년 전(1천202건)에 비해 24.4%(249건)나 감소한 것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아파트건설 계획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재별로는 광주의 주택건설업체와의 계약이 241건으로 1년 전(466건)에 비해 48.3%(225건)나 줄었다. 전남도 주택건설업체와의 계약이 2006년 445건에서 지난해 181건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타 시·도 주택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는 349건으로, 1년 전(109

건)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하면서 지역별 부동산경기 격차를 반영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남 소재 전문건설업계도 비슷하다. 지난해 전남의 2천412개 회원업체의 총 실적은 2조5천959억원으로 2006년(2조3천908억원)보다 5%(1천87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78.8%(1천901개)가 평균 공사실적인 10억4천만원을 밑도는 수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은 지역에서 발주한 52개 대형공사의 하도급 시행액 1조3천822억원 가운데 76.3%(1조547억원)를 수도권 등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영난 악화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전남·북, 제주 商議 협의회 결성"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 지역발전 로드맵 구상
21개 기업 매달 정기모임 현안 해결 적극 모색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조만간 광주상의를 비롯해 전남·북, 제주지역 9개 상회를 아우르는 협의회를 결성해 지역발전 관련 협신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7일 광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들의 경제단체 수장이 2개월에 한번씩 만나 지역발전 관련 고민하고, 지역현안을 정부에도 한 목소리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첫 모임을 5월에 갖

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21개 업체가 분기별로 느슨하게 개최하고 있는 모임인 월례회를 조정하겠다"면서 "특히 형식적으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청·환경청·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의 지방청장을 초청, 기업애로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5월 3일



광주 상무 시민공원에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체육대회와 위안잔치를 열었다. 광주시의가 다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상의는 오는 2011년 임의가입단체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역량을 의뢰해 다음주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서창농협
주유소 영입 시작



광주 서창농협(조합장 배인수)은 26일 서구 서창동에서 주유소 개점식(사진)을 갖고 본격 영입에 들어갔다.

이날 개점식에는 신성수 농업광주 지역본부장, 전주언 서구청장, 강기석 서구의회의장 외에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창농협 주유소는 부지 1천10㎡, 건물 199㎡ 규모로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며 옥외 자동세차기 1대, 고정주유설비 5기, 고정급유설비 1기, 이중벽 지하탱크를 갖추고 있다.

배인수 조합장은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유류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고, 조합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31일 명퇴 김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

"40년 공직생활 '따뜻한 세정' 노력"

김정민(58·사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40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난다.

강진 출신인 김 청장은 지난 68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들어와 지방국세청장까지 오른 임직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세무서에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이후 광주세무서 법인세

과장, 광주국세청 법인세 과장, 안영·송파세무서장, 국세청 심사 2과장, 광주국세청 조사 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 2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따뜻한 세정'을 실천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광주청장으로 부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청장은 재임기간 동안 매사에 공사가 분명하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많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추진력과 꿈을 아끼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친환경 소재 골프웨어

(주)광주신세계 이동수 골프가 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상쾌한 방수·방풍성을 지닌 골프웨어를 선보였다. 바람막이(남) 28만5천원, 훈균티셔츠(남) 16만5천원, 프로틴 바지(남) 22만5천원, 콜에버 바람막이가 28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삼광회' 등 지역 230여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

"삼성특검 장기화 ... 경영난 가중"

특검 조속 마무리 호소문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 협의회인 '삼광회' 등 230여개 협력업체들은 삼성특검이 장기화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삼성특검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호소문을 27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에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중국·인도

등이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세계로도 전하고 있고, 생활패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특검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협력업체 대다수가 투자, 해외 마케팅, 판매전략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삼성과 함께 성장해온

230여개 협력업체 2, 3차 협력업체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넘어 매출감소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 재고물량 증가, 유인력 발생 등으로 언제 공장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삼성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삼성특검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진월 '남양휴튼' 잔여가구 분양

남양건설은 광주시 남구 '진월지구 남양휴튼'아파트 잔여가구를 분양한다.

남양건설은 이번 분양을 위해 '진월 남양휴튼' 내에 샘플하우스를 마련하고 오는 29일 문을 연다. 공급 면적은 121.25㎡(43평형)와 150.68㎡(52평형) 등 2가지로 총 5개동, 216가구가 분양된다.

진월택지지구는 제2순환도로와 광주시내, 나주·목포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단지에서 봉선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가 개통돼 기존 봉선동의 편의시설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문의 062-367-0070.

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번 단지내 샘플하우스 오픈으로 명품 주거단지 자연과 교통, 교육 환경을 소비자들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전문건설협 광주시회 추경
대주건설 등 공로 감사패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차주열)는 2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이규준 전문건설협 중앙회 수석 부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주건설과 (주)한양, 남양건설, (주)현진 등이 전문건설협계의 수주물량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김응모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주관서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유공자 표창 및 '2007년 세업·세출 결산' 등을 의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正統日食 미도

확장기업

일본이포에대한 15년간을 일러하여 최고의 권위자로서 전문적으로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빌딩건설 부동산개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당연히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 서울 본

당첨/수입특선	2,000,000
비도형식	1,000,000
특별교육비 (매년보통교육비)	1,000,000

총단지 50억 투입 (당첨후 50억)

광주특수단지개발사업 **234-0001**

모험이 국내 국외
전원 여행사

062-329-5531 023-6821

**모험이여행사
장차기남여행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추경
대주건설 등 공로 감사패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차주열)는 2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이규준 전문건설협 중앙회 수석 부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주건설과 (주)한양, 남양건설, (주)현진 등이 전문건설협계의 수주물량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김응모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주관서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유공자 표창 및 '2007년 세업·세출 결산' 등을 의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